

2016년 10월 15일(토)~16일(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사랑의 친구들이 '결식아동돕기 열아홉번째 바자' 를 엽니다

- * 과일, 젓갈, 멸치, 천일염 등 엄선된 농산품과 지방 특산품이 가득!
- * 미국, 홍콩, 일본에 사는 한국 어머니들이 현지에서 구입한 유명 브랜드 제품과 해외특산품을 착한 가격으로!
- * 디자이너 의류, 주방용품, 다양한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 후원 : 글로벌어린이재단, 하나금융나눔재단
- 문의 : 사랑의 친구들 734-4945~7

※ 바자의 수익금은 소외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바자 한마당



발행인 : 김성재
서울 종로구 필운동 9길 10
Tel : (02)734-4945~7
Fax : (02)734-4948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사랑의 친구들

Friends of Love

2016년 9월 / 통권 제 42 호



한마음, 한뜻으로 큰 사랑 이루기를 열아홉번째 사랑의 친구들 바자에 참여하며

이 종 옥 (사랑의 친구들 이사)

오는 10월 15일~16일 사랑의 친구들 바자가 열린다.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이 바자를 시작한 것이 었그제만 같은데 어느새 19회째라니 세월이 무상하다. 이희호 선생님께서 청와대의 안주인이 되신 직후 박영숙 선생과 나를 청와대로 부르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 후 '결식아동 돕기 운동'을 위해 미국에서 '글로벌어린이재단'이, 한국에서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이 결성되었고, 1998년 가을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첫 바자가 열렸다.

나는 '5.17가족'들과 함께, 또 내 남편을 비롯하여 며느리들과 딸 그리고 손녀들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첫 회부터 19회째를 맞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바자에 힘을 보태고 있다. '5.17가족'이란 1980년 5월,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함께 고난을 겪은 분들의 가족들 모임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1980년 5월 17일 밤에 남편들이 중앙정보부에 강제로 연행당한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매월 17일이면 '5.17가족' 모임이 어김없이 열리고 남편들이 겪은 아픔과 추구했던 가치들을 공유하고, 그 가치들의 성취를 위해 힘을 보태려고 애쓰고 있다. 이 가족들은 '사랑의 친구들' 행사에 힘이 닿는 데까지 참여하고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일제강점기와 맞먹는 세월이 흐르다보니 혈육보다 더 짙은 정으로 엉겨 살던 가족들이 하나 둘 유명을

달리한 아픔이 짙다. 바자 초창기 열성을 다했던 박용길, 김석중, 박영숙 등 그 빈자리가 너무나 아쉽다. 특히 박영숙 선생의 부재는 내게 큰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박 선생의 아이디어는 늘 신선하고 기발했다. 돌아가시기 직전 해인 2012년 바자에서도 박 선생은 적극적으로 어묵을 팔아서 힘을 보탤다. 어묵꼬치 만드는 기술습득을 위해 돌이서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어묵을 사먹던 기억이 었그제 같은데 그는 지금 볼 수가 없다.

고 김근태 의원과의 추억도 잊혀지지 않는다. 내게는 손녀가 셋 있는데 그 아이들 모두 유치원생일 때부터 바자에 나와 얼음에 채운 생수를 팔아왔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된 막내 태연이도 유치원생일 때 생수를 팔았는데 김근태 의원이 그 귀여운 모습에 "너무 비싸다"고 농담을 걸자 그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만 것이다. 김근태 의원이 우는 아이를 달래려 애를 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올해 열리는 바자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성황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특히 해외에서 오시는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들의 뜨거운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깊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모두 선하고 바른 삶을 향해 함께 가십시오.

더위도 우리의 즐거움을 막을 수 없어요!

글로벌어린이재단이 후원하는 2박 3일간의 여름캠프에 1,261명 어린이 참여

서울 애들아!!오늘은 화내도 좋은날이야 ~ 7월 25일~27일

- ★ 자신도 모르게 거친 행동과 거친 말을 보이는 어린이들. 내재 되어있는 분노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통해 심리,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본다.
- ★ 서울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우리동네 마음살핌" 6개 기관 어린이 220명
- ★ 장소 : 충북 제천군 힐링웰빙타운테라



경주 '너와 나의 동그란 마음' 7월 27일~29일

- ★ 어린이들이 자치회의를 통해 직접 캠프를 꾸려나간다. 서로 협동하여 텐트를 치기도 하고 놀이도 주도하며 진행되는 2박 3일간의 캠프. 자연스레 익혀지는 협동심, 자립심, 그리고 리더십!
- ★ 경북 경주 1004오케스트라 8개 기관 어린이 198명
- ★ 장소 : 경주시 국민청소년수련원



대전 친해지길 바래 - 사랑 나눔 캠프 8월 1일~3일



- ★ 2009년부터 교복지원 및 장학금 마련을 위한 사랑나눔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9개 기관 어린이들에게 행사 준비 전,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캠프.
- ★ 대전 사랑 나눔 9개 기관 어린이 220명
- ★ 장소 : 충북 영동군 송호청소년수련원

광주 공동체세워가기 "사라진 마을을 재건했다 전해라" 8월 8일~10일



- ★ 극한 상황에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고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가정을 전제로 어린이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정하고 난관을 헤쳐 나간다. 지혜와 힘을 모아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본다.
- ★ 광주 홀리트리교육지원센터 9개 기관 어린이 78명
- ★ 장소 : 전남 곡성군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

인천 네이처그린클린 8월 10일~12일



- ★ 아름다운 자연을 재료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며 어린이들은 환경 파수꾼이 되어본다.
- ★ 인천 지구아이파수꾼 5개 기관 어린이 115명
- ★ 장소 : 인천 옹진군 소야도

증평 2016년 “자연과 함께 어울림” 증평지역 연합캠프 8월 10일~12일

- ★ 체험활동에 소외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벗삼아 신나게 놀아본다. 2박3일 동안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어스레 우정은 자연스레 쌓여만 간다.
- ★ 충북 증평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5개 기관 105명
- ★ 장소 : 충남 태안군 벗가리마을



서울 애들아~~ 전통과 함께 놀아볼까? 8월 16일~18일



- ★ 휴대폰, 인터넷, 게임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오늘날의 놀이에 접목시킨 다양한 전통놀이를 경험해 보는 시간!! 전통놀이에서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배워보며 모두와 하나가 되는 캠프.
- ★ 서울 동대문구방과후연합회 6개 기관 어린이 105명
- ★ 장소 : 경기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군산 “자연”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nature”!) 8월 17일~19일



- ★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느낌의 미학, 옛것의 소중함을 깨달아본다. 또한 단체라는 큰 울타리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해 본다.
- ★ 전북 군산교육복지협동조합 5개 기관 어린이 110명
- ★ 장소 : 전북 군산시 새들강자연학교



익산 너와 나 행복한 나들이 F.T.A 「Feel & Think & Amigo」 8월 17일~19일

- ★ 나 밖에 모르고, 너 때문에 라는 인성이 팽배한 마음에서 벗어나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소통해 본다. 장애, 비장애아동이 함께 뛰어놀며 성장해 가기에 캠프의 의미가 더욱 뜻 깊다.
- ★ 전북 익산 온새미로 연합공동체 6개 기관 어린이 110명
- ★ 장소 : 전북 완주군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채움과 휴식이 있는 공부방 교사 여름캠프

방학 동안 진행될 캠프 정보 공유하며 경남 남해에서 2박3일 진행해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은 저소득지역 어린이들의 보호, 학습, 식사 등 제2의 보호자의 역할과 더불어 센터 관리, 행정 업무 등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재충전의 시간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2004년부터 진행해 온 '지역아동센터 교사 사전캠프'에 올해는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GKL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덕주)의 후원을 받아 6월 15일~17일, 2박3일간 경남 남해 일대에서 진행했다.



경남 남해에 도착한 교사들은 보리암, 다랭이마을을 비롯해 여름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와 고즈넉한 마을들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는가 하면 바닷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씨카약 타기와 갯벌체험 등을 즐기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 있었다.

이번 사전캠프에는 어린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협동심을 길러주는 여



름 캠프를 준비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여름방학 동안 진행될 캠프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몇가지 놀이를 직접 시연해보는 시간도 함께해 공부방 교사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캠프에 참여한 교사들은 2박 3일간의 다양한 체험과 휴식, 교류를 통해 "타지역 선생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힐링의 시간이 되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놀이를 직접 해 봄으로써 아이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잘 되는 것, 좋은 점들은 공유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들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었다"는 등의 소감을 밝혔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들을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놀이로 어린이들의 불안한 심리와 정서 치유에 도움을 주는 푸드테라피 프로그램

초코파이로 나의 마음 표현하기



- ① 초코파이와 이쑤시개를 하나씩 나눈다.
- ② 현재 자신의 기분을 초코파이에 표현한다.
- ③ 작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 ④ 활동이 끝나면 만든 작품을 맛있게 먹는다.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한다. 또한 창의성과 독창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휴대폰, 인터넷, 게임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의 유익함을 알아가면서 협동심, 인내심,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프로그램

가위바위보 게임



- ① 출발선에 모둠별로 나란히 앉는다.
- ② 각 모둠별로 가위바위보 할 대표를 뽑아 맨 앞줄에 마주보며 앉는다.
- ③ 각 1명씩 대표와 가위바위보를 해 이기면 대표 뒤에 가서 줄을 서고 패한 사람은 출발선까지 되돌아가 이길 때 까지 반복한다.
- ④ 이렇게 해서 모듬원 모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된다.

풍선 터뜨리기



- ① 모듬별로 색깔이 다른 풍선 1개씩 가진다.
- ② 경기가 시작되면 풍선을 높이 올린다.
- ③ 자기 모듬 풍선을 터뜨리지 못하게 높이 띄우며 상대 모듬 풍선을 먼저 터뜨리는 모듬이 이긴다.

또래들과의 사귀어 서툰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 형성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른다.

2박3일 서울나들이 - 집으로 간다는데 좋으면서도 아쉬운 마음 전북 완주지역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신나는 서울체험

‘서울초청 행사’는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울 나들이가 힘든 농·어촌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행사로 해마다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성숙영)이 후원해왔다. 지난 2월 공모형태로 서울방문 신청을 받아 전북 완주의 4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88명이 서울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서울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체험하고 싶은 곳으로 2박 3일의 일정을 꾸렸다.



서울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종이문화재단에서 모여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종이문화재단 노영혜 이사장이 어린이들에게 종이박물관 견학과 종이접기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후원하고,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종이박물관에 이어 어린이들이

찾은 곳은 전쟁박물관과 남산N타워. 둘째날은 경복궁 수문장교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울나들이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도 방문해 책에서 보아온 역사적 유물들을 직접 보고 오후에는 한강을 찾아 유람선을 타고 시원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마지막 날은 어린이들이 가장 기대하던 놀이동산을 찾았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차레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아쉬움이 남았지만 오후에는 아쿠아리움을 찾아 산으로 둘러싸인 완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바다 생물들을 찬찬히 관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친구들이 2000년부터 진행해 온 지방 어린이 서울초청행사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어린이재단이 해마다 행사를 후원해 왔으며, 올해는 재단법인 종이문화재단도 함께 해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서울 여행을 선물했다.

“서울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4월 27일 2박3일로 서울 나들이를 가게 됐다. 빨리 가고 싶고 기대되고 설레는 기분이 들었다. 서울에 가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는데 서울 사람들은 답답할텐데 어떻게 다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산타워에서 ‘박물관에 살아있다’ 라는 곳에서 놀았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63빌딩을 지나는데 빌딩을 옆에서 보니 살짝 나팔모양?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처음 봤다. 높은 건물은 높게 쪽 길게 돼있는 줄 알았는데 나팔모양처럼 되어있어서 신기했다. 그리고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는데 시간이 너무 적어서 좀 아쉽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은 줄이 너무 길어서 타지 못한 것도 좀 아쉬웠다. 또 아쿠아리움에서 신기한 물고기 등등을 봐서 신기했다.

삼우초등학교 6학년 박가빈

“처음 가보는 서울,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다”

서울을 처음 가는 것이라 기대감이 약간 컸다. 드디어 서울 나들이 가는 날이 되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창밖으로 높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오른쪽을 쳐다보라 하셨다. 오른쪽을 보니 63빌딩이 보였다. 전주에도 높은 건물이 많지만 서울에는 훨씬 더 많았다. 처음 도착한 곳은 종이나라박물관이었다. 한지로 만든 오토바이, 종이로 만든 우산 등등 종이로 만든 신기한 작품들이 많았다. 종이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다. 구경한 후에 종이접기 시간을 가졌는데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었다. 던지면 돌면서 떨어지는 거랑 종이로 만든 팽이, 투호같이 던지는 것도 만들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색종이와 풀 등을 만든 회사를 오니 반갑게 느껴졌다. 이후 용산전쟁기념관을 거쳐 대방동 여성 플라자를 갔다. 이곳이 숙소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저녁이 되어 밥을 먹은 후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을 보니 아름다웠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다.

둘째날 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광화문 수문장교대식을 보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였다. 다행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였다. 웅장한 북소리에 맞춰 일렬로 행진하는 모습이 멋졌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예전에 만든 탐을 옮긴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곳에 문종이 쓴 글씨도 보았는데 역시 이름처럼 명필이었다. 여의도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서 자전기도 탔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가르며 타는 자전거는 매우 재미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마지막 날이 왔다. 오늘은 롯데월드와 아쿠아리움 가는 날이다. 시간이 부족해서 놀이기구를 많이 타지는 못했지만 재미있었다. 그 후엔 아쿠아리움을 갔는데 우파루파, 철갑상어 같은 신기한 물고기도 많았다. 신기했다. 드디어 집에 간다. 좋으면서도 아쉬웠다.

태봉초등학교 5학년 김범도

사랑의 친구들 제38차 정기 이사회



사랑의 친구들 제38차 정기 이사회가 지난 8월 30일 사랑의 친구들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6년 상반기 사업 및 재정보고’를 통해 2016년 8월까지 진행된 연합캠프 지원사업, 서울초청행사,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사랑의 간식나누기, 개별아동장학금 후원, 종이접기 교실 등에 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하반기 사업에 대한 토의에서는 다가오는 10월 15일~16일에 열리는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내년 설을 앞두고 진행될 예정인 ‘2017 사랑의 떡국 나누기’에 대해서는 행사 일정을 2017년 1월 19일(목)로 결정했다.

2016 하반기 ‘사랑의 간식 나누기’



국제선에 실렸다 개봉되지 않고 나오는 과자, 라면 등을 모아 간식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랑의 간식 나누기’. 2001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후원으로 현재까지 516개 기관 15,908명의 어린이들에게 지원되었다. 올 하반기에는 새로이 서울과 전남 장흥 지역아동센터 4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사랑의 간식나누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씩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간식 외에도 개인 또는 기업에서 후원한 다양한 물품들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2016 상반기 (1월~6월)>

광교마을지역아동센터, 그린지역아동센터, 솔샘지역아동센터,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충주지역아동센터, 행복을꾸꾸는지역아동센터, 화성우리지역아동센터

<2016 하반기 (7월~12월)>

부산지역아동센터, 안양지역아동센터, 월곡청소년센터방과후교실, 정남진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육성 프로그램’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육성 프로그램’은 종이접기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이 직접 자신이 속한 지역아동센터에 종이접기 교실을 열어 어린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3개월간 종이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종이접기강사 자격 장학과정에 참여한 12개 지역아동센터 중 3개 기관 (지역아동센터나눔공부방, 흑석희망지역아동센터, 기쁨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종이접기 마스터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문제해결 능력, 집중력을 길러주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돕고 있다. 참여 어린이들은 2월~9월 말까지 종이문화재단이 후원한 교재와 재료로 수업을 받고 3급, 2급을 거쳐 1급 마스터 과정에 도전한다.



미래회와 함께 하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평가회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평가회가 2016년 6월~8월동안 진행된 38차 지원을 마치면서 전국 49개 기관의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31일 진행되었다. 평가회에서는

영어교실에 관한 다양한 의견, 어린이들의 발전해가는 모습 등을 함께 나누고 공유했다.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미래회의 후원으로 2007년부터 지원되어 왔다.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1~2회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사랑의 친구들은 수업 교재, CD플레이어, 동기부여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1년 동안 3개월씩 4차례 진행되며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을 결정한다.

13명의 후원자와 1개의 단체에서 후원하는 ‘개별아동장학금’



개별아동후원 장학금은 개별 후원자가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나눔사업이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 준비물은 물론 생필품 구입조차 어려운 어린이, 자신의 희망에 다가가는 일이 꿈만 같은 어린이, 깊은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은 어린이 등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매월 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어린이들은 학습지, 예체능교육비, 상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나간다.

현재 13명의 개인 후원자와 1개 단체에서 3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2016 개별아동 후원자>

김경란, 김경희, 김병준, 김수정, 김지연, 김철웅, 김홍기, 노영혜, 성현정, 인재근, 정명화, 최병권, 최병철, 미래회

To. 사랑하는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위업이에요. 저의 화가의 꿈을 위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리기가 좋았고 취미가 있었는데 미술에 대해 기초적인 부분과 그림 그리기 색칠 공부를 통해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년 동안 미술선생님이란 미술을 배웠는데 처음엔 저는 물감으로 색칠하는 걸 진짜 못했는데 미술을 배워서 물 조절, 색 섞기, 색칠하는 게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래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은 미술에 대한 한 부분이지만 좀 더 배우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 다른 친구들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화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물 조절, 색 섞기를 잘 못합니다. 좀 더 배우고 싶어요. 1년 동안 저의 꿈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도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가좌중 1학년 서위업